

작년 3분기 일자리 증가폭 6분기 연속 둔화...청년층 1년째 ↓

통계청,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일자리 34.6만개 증가...10개 분기 만에 최저 ↑ 건설 부진에 40대 2019년 2분기來 감소 전환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5만개 가까이 늘었지만 증가폭은 6개 분기 연속 둔화했다.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1년째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제 허리층인 40대 일자리도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4만2000개로 1년 전보다 34만6000개 증가했다. 증가폭은 2021년 1분기(32만1000개) 이후 10개 분기 만에 가장 작았다.

분기별 일자리 증가폭은 2022년 1분기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분기 62만8000개, 3분기 59만7000개, 4분기 49만1000개, 지난해 1분기 45만7000개, 2분기 37만9000개에 이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둔화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26만9000개 증가해 가장 큰폭으로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의 77.7%는 고령층 일자리인 셈이다. 주로 보건·사회복지(7만4000개), 제조업(4만2000개), 사업·임대(2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와 30대 일자리도 각각 9만9000개, 6만2000개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8만개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1년 연속 감소세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2만2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정보통신(-1만개) 등에서 줄었다.

40대 일자리도 4000개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40대 일자리는 2018년 2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5개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증가했다가 지난해 3분기 17개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대 이상 일자리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가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폭증하는 산업 요인이 합쳐지면서 일자리가 늘었다"며 "20대는 인구감소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대의 경우 부동산업 일자리가 줄고 건설업은 둔화했는데 작년 3분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이라며 "앞으로 40대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는 12만3000개, 여성 일자리는 22만2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6.5%, 여성이 43.5%를 차지했다. 남성은 제조업(4만7000개), 전문·과학·기술(1만9000개), 운수·창고(1만9000개) 등에서 늘었고 여성은 보건·사회복지(9만개), 숙박·음식(2만8000개), 전문·과학·기술(1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10만5000개), 제조업(5만개), 숙박·음식(4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건설업은 6000개 늘었지만 2분기(1만9000개)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업 일자리도 6000개 줄었다. 전기·가스업도 1000개 감소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기타 운송장비(1만4000개), 자동차(8000개), 금속가공(8000개) 등은 증가했으나 섬유제품

(-5000개), 고무·플라스틱(-3000개), 전자통신(-1000개) 등에서 쪼그라들었다.

소분류로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9000개), 자동차 부품 부품(8000개), 통신·방송 장비(7000개) 등은 늘었지만, 전자부품(-7000개), 플라스틱제품(-2000개), 직물 직조·직물 제품(-2000개) 등은 줄었다.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종사한 지속 일자리는 1448만8000개(70.5%),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9만4000개(17.0%),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56만개(12.5%),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1만4000개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회사법인(23만2000개), 회사 이외의 법인(6만9000개), 정부·비법인단체(4만4000개), 개인기업체(2000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김수권기자

"1천만봉 팔린 노가리칩 인기 있다" 롯데웰푸드, 후속 과자 출시

키스틱 노가리칩·오잉 노가리땅콩 선풍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어른용 간식 시장 공략을 위해 안주 스낵 '오잉 노가리칩 청양마요맛'을 응용한 '키스틱 노가리칩 청양마요맛'과 '오잉 노가리땅콩 청양마요맛'을 선보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오잉 노가리칩은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올해 1월까지 누적 1000만봉 이상 판매 대표적인 안주 스낵 제품이다. 현재도 생산 라인을 풀가

동하며 주요 유통채널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키스틱 노가리칩은 고소하고 짭짤한 노가리 맛 시즈닝과 매콤한 청양고추 다이스를 첨가해 오잉 노가리칩을 탱글한 식감의 어육소 시지로 구현했다.

폭죽 박힌 노란 노가리 맛 입자와 초록색 청양고추 다이스가 풍미를 더한다. 번거로운 조리과정 없이 간편하게 간식이나 안주로 즐기기에 적합하다.

키스틱에 스낵 맛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잉 노가리칩이 갖고 있는 안주용 해물맛 스낵과 이색 간식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담았다. 기존의 이지켓 라벨 포장에 오잉 노가리칩의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른용 과자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잉 노가리칩을 다른 유형의 과자로 확장한 오잉 노가리땅콩도 선보였다. 대표적인 맥주 안주인 땅콩과 노가리 구이 맛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안주 스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고소한 땅콩볼에 짭짤한 노가리, 그리고 청양마요 맛을 더해 느끼함을 잡았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어른용 간식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잉 노가리칩의 다양한 변신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재미있는 트렌드를 적극 발굴해 어른용 간식 시장을 지속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GS25 '푸냥이푸딩젤리', 젤리 매출 1위 올라

GS25티엘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 8일부터 선보인 푸냥이푸딩젤리가 5000여 GS25 취급 매장에서 출시 즉시 단숨에 젤리 매출 1위에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푸냥이푸딩으로 유명한 충북 청주시 소재의 명소 카페노리는 대구 지역 모남회에 이은 GS25의 '지역 명소 전국구 만들기 프로젝트'의 2호 제휴처다. 푸냥이푸딩은 카페노리를 대표하는 디저트 메뉴로 귀여운 고양이 모양의 푸딩과 탄성으로 '흔들리는 고양이 푸딩'의 사회적관계망(SNS) 영상이 500만 뷰를 넘기며 큰 화제를 불러모은 바 있다.

GS25의 상품전략팀 지재산(IP) 제휴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카페노리를 찾아 제휴 논의를 마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제품

을 7차례 조정하고 푸냥이푸딩젤리를 차별화 상품으로 선보였다.

초도 물량이 한정적이었던 푸냥이푸딩젤리를 취급하는 GS25 매장에서는 출시 즉시 품절 사태가 빚어졌고, 젤리류 매출 1위인 '하리보 골드바렌'까지 밀어냈다.

GS25는 이번주부터 현재 대비 5배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려 모든 매장에서 취급이 가능할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다.

GS25는 지역 명소 전국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 모남회와 청주 카페노리의 성공적 쇼케이스를 이어갈 수 있는 추가 지역 제휴처의 발굴 프로젝트를 지속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 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여행 비수기 항공권 싸진다"...LCC, 할인 경쟁 '가열'

편도 일본 8만원, 동남아 11만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통상 '여행 비수기'로 여겨지는 2분기 여행 물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LCC는 제주항공,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등이다.

먼저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 'JJ멤버스워크'를 시작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선 5개, 국제선 20개 총 25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료 등을 모두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으로 국내선의 경우 2만 29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국제선의 경우 ▲중화권 8만9700원부터 ▲동남아 11만1700원부터 ▲몽골 12만1원부터 ▲싱가포르 18만7300원부터 판매한다.

인기가 높은 노선들 중 인천-나트랑·달랏·하노이 노선은 편도총액 11만6700원부터이며, 인천-코타키나발루 15만2000원부터, 인천-올란바토르 16만2000원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같은 날 에어서울은 제주항공 JJ멤버스워크와 동일한 시간에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 '사이타 특가'로 맞붙는다.

일본 노선은 편도 총액 ▲인천~도쿄(나리타) 8만8800원 ▲인천~오사카 7만8800원 ▲인천~후쿠오카는 6만88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에어서울이 단독 취항 중인 다카마쓰와



요나고 노선도 6만8800원부터 판매된다.

26일 오픈하는 동남아 노선은 인천~보라카이 노선은 9만9800원부터, 인천~다낭 노선과 인천~나트랑 노선은 각각 11만9800원, 12만9800원에 예약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 19일부터 '황금연휴 해외여행 특가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로 3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국제선 26개 노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선착순 한정 초특가 운임 이벤트를 활용하면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방콕(수완나폼) 14만1160원부터 ▲인천~보라카이(갈리

보) 14만6000원부터 ▲인천~시드니 33만1000원부터 ▲인천~홍콩 11만6000원부터 ▲청주~다낭 12만6000원부터 ▲대구~다낭 12만6000원부터 등이다.

초특가를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황금연휴'를 입력하면 노선별 편도 및 왕복 항공권에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수기로 분류됐던 3~6월, 9~10월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전체의 60% 이상이었다"며 "앞으로도 비수기 알뜰 여행객을 위해 합리적인 항공 운임과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무신사, 스포츠 브랜드 최대 80% ↓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 예정

무신사가 운영하는 스포츠 전문관 무신사 플레이어가 스포츠 경기 개막 시즌을 맞아 '에너지워크 #스포츠타임: 시즌 개막(에너지워크)'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에너지워크는 본격적으로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봄 시즌을 맞이해 스포츠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최대 18%까지 추가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며, 이달 신규 발매된 스포츠 브랜드 신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기획전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러닝, 피트니스, 골프, 테니스, 수영, 아웃도어 등 종목별 상품을 다양한 혜택으로 제공한다.

호카, 미즈노 등 러너를 위한 러닝화 브랜드부터 에이치텍스, 웨이든, 쟈시믹스 등 피트니스웨어와 옴폼 전문 브랜드들이 할인 상품을 선보인다.



봄을 맞아 테니스와 골프를 즐기는 고객을 위해 월슨, 헤드, 말본골프, 골든베어 등도 행사에 참여한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개막 시즌을 맞아 팀을 응원하는 팬들을 위한 상품 큐레이션도 확인할 수 있다.

유니폼, 굿즈, 트레이딩 카드 등 인기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나기자